



한지로 만든 청자 조형물

강진군 대구면 청자도요지에 청자문화재 기간동안 전시될 한지로 만든 대형 청자 조형물이 세워졌다. 청자문화재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열리며 청자빚기 체험, 해의 도자기전시회, 고려 왕실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강진군에 영어타운 들어선다

칠량면 송로분교에 11월초까지 조성

강진군 칠량면 송로분교에 영어타운이 세워진다. 강진군은 폐교된 송로분교를 리모델링해 오는 11월초까지 영어타운을 조성한다. 총 면적 9천900㎡(운동장 포함) 규모의 영어타운은 1동 2층 건물에 상황체험시설, 학습체험 시설, 놀이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영어체험 공간을 갖추게 된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원어민과 영어로만 대화하는 공학 출입국 심사대, 비행기 내부,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병원 등이 들어선다. 또 2층 옥상에는 거리 타운(310㎡)이 조성된다. 강진 영어타운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주중 통학반, 주말 심화반, 방학 캠프과정 등 1일 40명씩 입소하게 된다. 영어타운에는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교사 각 3명 등 8명이 상주하게 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아동 인지능력 향상·쾌적한 노인 생활 등

고흥,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전개

고흥군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에 시행하게 될 혁신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과 '쾌적한 노인 공동생활환경조성사업'은 전문 소독·방역 업체를 지정해 경로당 33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 정소를 실시하게 된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은 용진생크리크와 아이북랜드 2개사의 독서전문 도우미가 취학 전 아동 174명에게 독서지도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쾌적한 노인 공동생활환경조성사업'은 전문 소독·방역 업체를 지정해 경로당 33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 정소를 실시하게 된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청림 농협구현 지정결의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지난달 29일 전직원 및 관내 농·축협 전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림농협구현을 위한 지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농업·농촌과 농협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농협가족 모두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지부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계통조직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삶과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역량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태양광 발전소 유치 나서야”

장흥 주민들 “일조량 풍부·해안지역 있어 최적지”

최근 전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으나 장흥군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이 저조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장흥군은 타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지역을 끼고 있는 등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장흥지역 태양광 발전소는 3기 788kW에 불과해 ▲영암군 52개소 1만8천288kW ▲해남군 21개소 1만3천565kW ▲보성군 15기 9천724kW 등 인근 시·군에 비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부진한 것은 해안가 임야 등이 경사가 심해 공사비 부담이 많은데다 문중 공동 명의로 된 부지가 많아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부지 소유자들이 공시지가나 현 시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흥군이 산림 훼손을 우려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꺼리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때문에 활발한 태양광 발전소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타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지방세 증대 등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군에서는 전기 판매 수익의 일정 액수를 지자체에 환원키로 협약을 맺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의 경우 MW 당 2억원의 판매 수익금을 받기로 민간회사측과 협약을 체결,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이뤄질 경우 연간 8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자에서 태양광 발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추석선물은 나주배가 최고”

나주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품 나주배' 판촉에 발 벗고 나섰다.

올 나주배 예상 생산량은 7만6천여t으로 지난해 7만t보다 8%(6천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5kg들이 507만 상자 분량이다.

생산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성장기인 6~7월계 마른장마로 비가 적었던 데다, 8월 고온으로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었던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에 비해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고 가격 또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중·저가대 선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와 나주배원예협동조합은 나주배 판촉을 위해 이달 초부터 노안면 전시판매장과

주몽 세트장, 정부종합청사, 서울 종로구 등에서 직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판매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나주시는 대도시 소비자들이 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1.5kg, 3kg, 5kg 단위의 소포장 제품도 선보일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모두 3천t의 배를 수출, 내수가격 지지효과는 물론 분산 출하에 따른 물량조절로 가격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나상문 나주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좋은 품질의 배를 잘 선별해 통일된 박스로 포장해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나주배 명성에 걸맞게 신뢰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유통체계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강강술래 춤사위 배워 보세요”

해남군, 토요일마다 운영

해남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문내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에서 강강술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체험마당은 강강술래전승보존회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8호인 강강술래의 멋과 가락, 춤사위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수하게 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비는 무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해남특산품도 제공된다.

토요체험마당은 매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011-636-3490, 061-530-5918)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농기구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 예초기 더이상 없애지지 않아요

신선한농기계, 모내기농기계, 전정농기계, 배양농기계, 동계농기계

062)363-4800

삼아싱크

● 스프링클러 ● 공작농기계 ● 파종기 ● 황수기
● 수직농기계 ● 비닐심부기 ● 소형농기계 ● 소형전원 오토

cafe.daum.net/furumin

마늘주사 후루민을 찾으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주최: Kyorin Pinedo 주주회사(日本)

주관: 마늘주사 후루민

Tel: (062)36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투자하실 경우, 영남 김장님 및 일반 투자자를 모십니다